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만여명

정신박약아 보호시설인 인천 ○원에서 일하는 김아무개(35·여)씨는 3년 경력의 보육사다.

김씨는 이곳에서 먹고 자며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정박아를 돌본다. 낮에는 아이들과 놀아 주고 씻기고 옷을 갈아입히며 밤에도 역시 아이들 틈에서 잠을 자야 한다. 종종 정박아들의 대·소변을 받아내 줘야 하기 때문이다.

일주일마다 한두번 만나질 정도의 외출시간을 빼면 김씨의 일상생활은 정박아들의 어머니 또는 손발의 역할로 채워지는 셈이다. 신앙의 힘이 없었다면 이처럼 힘든 일을 감당하지 못했을 것이다.

피부미용사로 일하다 이곳에 들어온 김씨는 결혼을 하지 않을 생각이며 앞으로 목회자가 되기 위해 시간을 쪼개어 방송통신강좌를 듣고 있다.

김씨가 받는 봉급은 월 28만3천원. 돈을 벌기 위해 하는 일은 아니지만 너무 박봉이다. 정부에서는 김씨와 같은 사람

연령 분포는 20대가 47.5%, 30대가 21.3%이며 40대와 50대가 각각 14.2%, 10.6%로 나타나고 있다.

종교에 대한 공식통계는 잡혀 있지 않지만 90% 이상이 종교를 갖고 있다는 관계자들의 말에 비춰볼 때, 결국 우리 사회의 정상적 삶에서 밀려나 국가나 복지시설의 보호를 받고 있는 수용인들에게 관심을 갖고 실제로 돌보고 있는 사람들은 '종교적 믿음'이 있는 젊은 여자들'이라고 해도 지나친 억측이 아닌 셈이다.

시설에서 이들이 하는 일은 일반 사람들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렵고 고되다. 인격체를 상대하는 일인 만큼 인간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아예 불가능하다고도 말할 수 있다.

어린이를 돌보는 보육사나 보조원은 기본적으로 시설 안에서 살아야 한다. 잠을 자다가도 수시로 일이 생기기 때문이다.

취사·세탁을 맡은 사람들이 따로 정해져 있지만 실제로는

다. 그렇더라도 이들의 봉급은 현재 공무원의 51% 수준에 불과하다.

이들의 봉급은 국가예산에서 90%가 지원되며 복지법인에서 10%를 부담한다. 보사부는 올해 복지수당, 학비 보조금, 장기근속수당을 신설하고 가족수당을 올리기 위해 예산신청을 했지만 기획원쪽에서는 가족수당과 복지수당에 대해서만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이런 이유들로 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이직률은 매우 높다. 88년 5.33%, 89년 6.67%에서 지난해에는 7.03%로 이직률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간호사 20.83%, 보육사 17.07%, 생활지도원 11.49%, 취사세탁부 16.04%가 복지시설을 떠나 그나마 인력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종사자 1천8백13명 가운데 3분의 1인 6백3명이 올해 각 시도에서 대거 채용한 사회복지전문요원으로 빠져나갔으며 내년도 2천명을 뽑는 사회복지전문요원으로 계속 빠져나갈 것으로 보여 인력의 양과 질이 모두 떨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수준 높은 복지시

91.8.1

노인·정박아등 위해 종일 봉사

여성 77%...봉급 공무원 절반수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라 부른다. 근무시간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아 근로자로 분류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 아동·노인·장애인·부녀·장애인·정신질환자·결핵환자 수시설 등 각종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는 모두 11천4백90명이다. 직종별로는 육사가 3천8백12명(33.2%), 조원 1천8백30명(15.9%), 취사세탁부 1천2백66명(11%) 등이다.

시설 수용자가 현재 10만4천6여명에 이르고 있어 종사자 1당 수용자 수는 9.1명이며, 이 일본의 4.6명에 비해 훨씬 높은 실정이다.

종사자의 평균 경력은 4년8개이지만 관리직을 제외한 실무종은 3년7개월에 불과하다.

학력은 79.4%가 고졸 이상이 여자 전체의 76.9%로 압도적으로 많다. 특히 아동과 보아시설은 여자 종사원이 각각 8%, 89.8%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아무 의미가 없다. 식사나 빨래에는 원장·총무는 물론 치료사·체육교사 가릴 것 없이 모두 달려들어야 한다.

입양을 앞둔 영아들을 돌보는 보육사들은 철저히 '아기 엄마' 노릇을 해야 한다. 그래서 아기와 헤어질 때면 누구나 눈물을 흘린다고 한다. 어린이들과 정이 들어 결혼을 포기하고 젊음을 바치는 사람들도 많다.

이처럼 거의 모든 생활을 사회복지시설을 위해 쏟아붓고 있는 이들에게는 '취조리'만큼의 봉급이 지급된다.

보육사로 첫 출발을 하면 26만5천원, 5년이 지나야 30만원을 받는다. 보조원은 초봉이 23만원이고 5년 뒤에는 26만1천원을 받는다.

출퇴근이 가능한 취사세탁부는 초봉이 15만8천원이다. 일반 과출부의 일당을 2만원 정도로 본다면 봉사정신 없이는 건디기 어려운 금액이다. 다행히 상여금은 연간 5백80%가 지급되며 가족수당도 월 1만원씩이 나온

설 종사자를 양성해 공급할 책임이 있는 정부로서는 대책 마련이 훨씬 더 시급하게 됐다.

현행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법인 종사자의 3분의 1을 사회복지사로 채용하도록 하고 있다.

보사부는 이를 위해 앞으로 시설 종사자에 대한 기본급여인상, 각종 수당 지급, 유사경력인정을 통한 호봉 상승 등 처우개선책과 사회복지사 양성제도의 보완 등의 방침을 마련해놓고 있으나, 예산상의 이유 등을 들어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은 전혀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따라서 여론형성 기능이 없다는 이유로 정부가 계속 시설수용자에 대해 무관심한 입장을 취한다면 시설 종사자의 봉사정신과 희생을 강요하는 식의 기형적 복지정책은 당분간 개선되기 어렵고 체제의 취약점으로 끊임없이 지적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성한용 기자〉